

## 서아프리카 문화의 구술성 연구\*

이 경 래

(경희대학교 교수)

### ◆ 국문초록

이 글은 서아프리카 구술문화의 특성, 즉 구술성의 다양한 양상들을 조명하고 있다. 아프리카 현대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구술전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만큼 아프리카 문명은 한 마디로 말의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은 인간 존재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아프리카인들은 세계를 창조하는 말의 재현능력을 믿으며 말에 무한한 힘을 부여한다. 이러한 말의 위상은 행위를 수반하는 수행발화처럼 그 수행적 가치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말은 아프리카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신성한 표현매체로서, 권위를 보장하는 열쇠이자 타인을 지배하는 통치의 수단으로서, 발화자의 인격을 알려주는 표지로서, 조상과 후손을 연결해주는 소통수단으로서, 그리고 미학적이며 시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말은 이처럼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여러 가지 제약 요소를 동반하게 마련이다. 즉 말의 소통은 다양한 사용 규범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된다. 또한 말은 창조신화에서 인간의 온갖 활동과 연관되며, 여러 자연 현상이나 사물과 비유된다. 이러한 말은 모이고 짜여서 직조(tissage) 행위를 통해 천(textum)이 만들어지듯 텍스트(texte)를 구성하며 결국에는 구술문학을 탄생시킨다. 구술문학은 때론 시 형식을 빌기도 하며, 때론 이야기 형식을 빌기도 한다. 이러한 서아프리카 문화의 구술성은 아프리카 현대 문학이나 전반적인 아프리카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 전통이 복원되거나 전복되는 양상을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서아프리카 문화, 구술성, 말, 구술 문학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2645)

## 1. 서론

현대 아프리카 소설가 아마두 쿠루마Ahmadou Kourouma의 작품을 읽다 보면 의성어·의태어나 반복어구의 빈번한 사용, 리드미컬한 서술 구조, 지역의 고유한 방언 등 구술 문학에서 접하게 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요소들의 발견은 아프리카 현대 문학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 코트디부아르 출신 작가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평론가 모아마두 칸Mohamadou Kane의 지적대로,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소설가는 전통 세계의 창조자들과 이야기꾼들의 방식들이 글쓰기에 스며들게 한다.”<sup>1)</sup> 한 마디로 말해 구술성의 전통은 현대 아프리카 문학의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때로 전통의 복원을 통해서, 때론 전통의 전복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아프리카 현대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구술 전통에 따른 구술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러한 구술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문화에서 말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미리 살펴봐야 할 것이다.

스페인인들의 정복 이전에 아메리카에서 개화했던 고대 문명은 ‘옥수수 문명’이라는 총칭으로 명명되었다. 마찬가지로 흑아프리카의 고대 문명은 말의 문명이라는 공통의 명칭으로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그래서 구술전통, 곧 말의 문명을 계승 발전시켜온 아프리카인들에게

1) Mohamadou Kane, «Les paradoxes du roman africain», *Présence Africaine*, n°139, 1986, p. 79. Sampa Diop, *Oralité africaine. Entre esthétique et poétique*, L’Harmattan, 2011, p. 19 재인용.

2) Mario Corcuera Ibáñez, *Tradition et littérature orale en Afrique noire. Parole et réalité*, L’Harmattan, 2009, p. 4.

있어서 말은 그 자체로 일상의 삶의 자연스런 방식이다. 문자보다는 말 자체가 기억작용을 용이하게 하고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게 한다. 문자를 모른다 해서 그들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들은 보고 읽는 것보다는 말하고 듣고 악기를 연주하고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일상의 소통행위가 더 보편적이고 용이했던 것이다.<sup>3)</sup>

그런데 현대 문명사회에서 구술 전통은 서서히 사라져가는 구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문자 문화가 대세를 이루는 사회에서 말의 기능은 차츰 쇠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덜 말하고, 이메일, SMS, 페이스북 같은 매체를 사용하며 말로 하는 구술 문화를 대체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관찰해보면, 말을 대신하는 문자 문화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말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자 문화의 강점과 글쓰기의 여러 이점에도 불구하고 말은 여전히 의사소통의 특권적 수단으로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글쓰기와는 다른 방식들, 즉 영상 이미지, 말, 음성 상징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의 첨단 기술은 핸드폰이나 라디오의 발달 덕분에 인간의 경험이나 사상, 생각들을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말을 문자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 자체로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주력 문화가 문자 문화이며 문자 교육이 지식의 생산과 편집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문자의 엄청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말은 여전히 의사소통의 특권적 수단으로 남아 있다. 이는 아프리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가령 서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동체의 역사 기록과 지식의 전수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오들은 전적으로

3) 장 드리브는 아프리카인에게 있어서 말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고 중요한 소통수단인지를 자신이 직접 경험한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Jean Derive, *L'art du verbe dans l'oralité africaine*, L'Harmattan, 2012, p. 14 참조).

구술 암송을 통해서 그러한 작업을 해왔지만, 최근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구술 전통을 사장시키기는커녕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그 방식들을 돋보이게 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아프리카 대륙에 10억 개 이상의 휴대폰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프리카 대륙 전체 인구가 12~13억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엄청난 속도의 휴대폰 보급률 상승은 굳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말로 소통하고 음성을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록 장치를 통해 구술 전통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처럼 구술 전통과 말의 위상에 대한 연구는 문명화된 현대 아프리카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연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부터 아프리카인, 특히 서아프리카인의 말에 대한 의식을 다각도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 2. 말의 위상

아프리카 현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하는 물음이 바로 아프리카 사회에서의 말의 위상에 관한 것이다. 문자 문화가 부재했던 사하라 이남의 흑아프리카를 두고서 역사철학자 헤겔은 ‘아프리카에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자에 의한 기술 문화에 익숙해진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폄훼하고,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야만이나 무지, 문명의 부재라는 오명을 씌우며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과연 아프리카에는 문명이 부재했던 것일까? 일본의 인류학자 가와다 준조는 ‘언어는 인류에 보편적이지만 문자는 조금도 보편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즉 문자는 세계 문명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분명 문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하지만, 반면 생생하고 가변적인 삶의 실제 경험들을 전달하기에는 언어체계의 단단한 틀 속에 갇혀있을 수 있

다. 오히려 개별적인 말들이 그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인들에게 역사는 그렇게 문자로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생생하고 살아 숨 쉬는 말을 통해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끌고 들어온다. 다시 말해 문자에 의해 기록된 역사는 없지만, ‘그리오’라는 특수한 전문 이야기꾼에 의해 삶 속에서 생생히 전달되어 왔던 ‘살아있는 역사’가 존재한다. 아프리카인들은 과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내려온 지식, 전통, 신화, 전설 등의 공동체의 문화 유산은 마을의 연장자이며 이야기꾼인 그리오의 말을 통해 교육되고 전수된다. 그는 역사 선생이며 전통 민요나 무용, 공동체 규범의 교육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말리의 민족학자 아마두 함바테 바Amadou Hampâté Bâ가 언급했듯이, 아프리카의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럼 아프리카 역사를 지탱하고 있는 말은 과연 아프리카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우선 그들에게 말은 인간 존재가 지니는 고유한 속성으로 받아들여진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이며 말하기는 인간 존재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더 나아가 말은 인간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것의 근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사실 다른 동물들도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들은 짖어낼 뿐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지적 능력과 입과 심장이 있다 해도 그들은 말을 할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한 마디로 말은 곧 인간을 규정짓는 기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도곤족Dogon은 세계가 두 부류의 존재들로 구분된다고 말한다. 하나는 ‘말을 하는 존재들’의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말을 하지 않는 존재들’의 부류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말을 하지 않는 부류에 아주 어린 아이들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발설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며 말을 할 줄 아는 존재들에 의해서만 소통되는 수단인 것이다. 더욱이 말은 단순한 랑그langue의 사용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에 속하는 파롤parole에 해당한다. 그래서 ‘말은 인간 존재

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교육을 통한 랑그의 습득도 필요하지  
 만, 그 랑그를 독특하고 창조적으로 개성 있게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아프리카 구술 전통은 이렇게 ‘시학적이며 미학적으로 이야  
 기를 잘 하는’ 그리오라는 전문가에 의해 전수되는 ‘말의 예술’의 결과  
 물인 것이다. 결국 아프리카에서 인간을 규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말이며, 그것도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닌 잘 짜이고 다듬어진 말이  
 다. 아프리카인들이 대체로 유창한 논리를 갖고 말을 잘하는 것은 이러  
 한 말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며 일상의 삶 속에서 말이 갖는 위상과  
 힘을 잘 알기에 평소에 학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왜 그토록 말의 예술, 곧 화술이 아프리카 사회에서 중시되었을  
 까? 왜 아프리카 사회는 말을 잘 다루는 사람을 우대했던 것일까? 아프  
 리카인들이 말에 무한한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말이 곧 세계의  
 창조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기독교 성경에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  
 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아프리카인들은 말이 곧 세계 창조라는 말  
 중심주의를 신봉한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그들은 말과 사물 사이의 상  
 동관계를 믿으며, 말의 재현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아프리카인들에게 말하고 명명하는 것은 경험을 창조하는 것이며  
 실재를 구성하는 것이다. 말을 대상화하지 않고 지시체의 실재에 속하  
 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말과 지시체가 서로 대응하고 상응한다고 여  
 겠던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말의 재현능력에 대한 회의를 하기 시작했  
 던 19세기 유럽인의 인식론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말의 재현능력을 믿  
 는 사람들에게 말은 그만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곧 말은 아프  
 리카 사회에서 그 ‘수행적 가치’로 인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 3. 말의 수행적 가치

언어학에서 볼 때 수행 발화는 발화행위, 곧 언술행위만으로 언어의

적 변화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발화된 문장의 내용이 언어외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언어에서 동사 ‘명령하다ordonner’가 부재하며 이러한 지시나 명령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동사 ‘말하다dire’만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그들 언어가 갖는 수행적 가치를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sup>4)</sup> 굳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을 하지 않아도 단지 말하는 행위만으로 그 문장의 내용이 행위로 옮겨지는 수행 발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무엇보다도 고유명사, 곧 명칭의 사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 문화, 특히 서아프리카 문화에서 고유명사는 명명된 존재에게 그것의 실존적 존재를 부여한다. 플라니족Peuls의 경우, 한 아이가 이름도 갖지 못한 채 죽게 되면 그 아이는 인간의 부류에도 분류되지 못할 정도로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되며 장례식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름으로 명명되지 못할 때 그 존재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크리스티안 세이두Christiane Seydou가 지적한 대로, “이름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격의 기호 그 자체다. 그래서 이름은 그것을 발설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그것이 의미하는 인격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sup>5)</sup> 마술을 걸 때도 기원하려는 대상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주술을 할 때 마법사는 주술 중간에 주술 대상자의 이름을 삼입해서 부르게 된다.

이러한 고유명사처럼 수행 발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특히 권위 있는 사람, 즉 가장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을 통해 일어난다. 서아프리카인들은 그들의 말 속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믿는다. 쥘스비에브 칼람그리올Geneviève Calame-Griaule이 언급

4) Paulette Roulon-Doko, «Le statut de la parole», in *Littératures orales africaines. Perspectives théoriques et méthodologiques*, Karthala, 2008, pp. 33-45 참조.

5) Christiane Seydou, «La notion de parole dans le dialecte peul du Mâssina (Mali)», *Journal des Africanistes*, n°57, Fasc.1-2, 1987, pp. 45-66 참조.

했듯이, “도곤족에게 있어서 가족의 장의 권위적인 말은 설사 그것이 불공정하게 생각될 때도 존중해서 듣게 되며 (...) 다만 침묵이 있을 뿐이다.”<sup>6)</sup>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의 신비로운 힘의 작용은 특히 저주와 축복의 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위기에 처한 자녀에게 부모의 말은 행운이나 축복을 낳기도 하며 반대로 죄를 범한 자에게 부여된 저주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말의 위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말은 가족 안에 존재하는 좋지 않은 관계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일 저주가 부당하고 조상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저주는 그것을 발설한 자에게로 향하며 결국 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이점에서 말의 수행은 극도로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문화적으로 인정된 규준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은 어설픈 말은 일단 발설되고 나면 위협과 위험을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도미니크 카자쥐Dominique Casajus의 표현처럼 “특히 가치 판단을 포함할 때, 생각을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또한 위협의 근원이 될 수 있다.”<sup>7)</sup> 다시 말해 극도로 예민한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정확하게 통제되지 않는 말은 무엇이건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말하기 전에 각자는 자신의 말을 숙고하고 검토해야만 한다. 또한 지나치게 빠르거나 수다스러운 말은 거짓말로 종종 해석되며, 반면 조용하고 절제되며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이 좋은 말로 평가된다. 모욕적인 말은 그것이 겨냥하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해치고 평가절하시키는 반면, 찬양하는 말은 그 대상의 가치를 높이고 평가절상시킨다. 그야말로 말은 그 수행적 가치로 인해 세상을 창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 사회에서는 그리오와 같은 전문

6) Geneviève Calame-Griaule, *Ethnologie et langage : la parole chez les Dogon*, Gallimard, Paris, 1965, p. 382.

7) Dominique Casajus, «Parole retenue et parole dangereuse chez les Touaregs Kel Ferwan», *Journal des Africanistes*, n°57, Fasc.1-2, 1987, p. 104.

적으로 말을 잘하는 이의 중요성과 존재 가치가 그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다고 할 수 있다.

#### 4. 말의 기능

그럼 이처럼 그 수행적 가치로 인해 위력적인 말은 아프리카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문자가 없었던 사하라 이남의 서아프리카 사회에서 말은 무엇보다도 모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아프리카인들은 동일한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환경을 공유하며 각자의 생각, 사상, 경험, 감정 등을 동일한 의미 구조를 지닌 말을 통해 전달하고 소통해왔다. 구술 사회란 의사소통의 구술 방식을 통해 구성원들의 기억, 지식, 과거, 가치 있는 행동들을 연결해주는 사회를 말한다. 그래서 말은 당연히 공동체를 떠받치며 공동생활의 모든 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 마디로 말은 의사소통의 방식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인들의 삶의 방식, 문화적 유산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소통의 수단이 문자가 아니라는 것만 다를 뿐 여느 대륙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소통의 수단은 또한 아프리카인의 영혼이 담겨있는 신성한 표현매체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요루바족Yorubas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말은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평범한 일상의 말이며, 다른 하나는 신성한 말이다. 일상의 평범한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말로서 이때는 대화의 기술이 매우 중시되게 마련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명성을 얻으며 여러 의식 때 청원의 대상이 된다. 대체로 아프리카인들이 그리오들처럼 말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신성한 말의 경우는 정치나 종교처럼 신비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영역에

서 주로 사용된다. 앞서 보았듯이 아프리카인들은 말에는 신비로운 효험과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들에게 말은 창조의 힘과 계시적 힘을 갖는다.<sup>8)</sup> 특히 말은 상징적이고 다의적 가치와 암시와 함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특징을 더욱 드러낸다. 그래서 신성한 말이 잘못 사용되거나 말에 오류가 생겼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점에서 말의 신성한 힘은 또한 말이 권위를 낳는 열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말은 아프리카에서 정치, 종교, 지성, 교육 권력의 제도에서 엄청난 위상을 갖는다. 그것은 말을 잘하는 능력, 즉 화술이 다양한 사회 구성을 조직하고 관계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의 유형들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말에 의한 구술 전통은 사회를 움직이고 인도하는 하나의 삶의 철학이자 방식으로 작동한다. 말은 그래서 모든 권위를 보장하는 열쇠이자 타인을 지배하는 통치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은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발설되어야 하며 또 경박하지 않고 진중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것처럼 공식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말은 발설하는 발화자의 인격을 알려주는 표지로도 작용한다. 말을 통해 발설자의 인격을 가늠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서아프리카 사회에서 이러한 말과 인간의 관계는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회 활동에 말로 참여하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말 자체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 증언 뒤편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증언하는 그 인간의 가치인 것이다. 말은 이처럼

---

8) 밤바라족Bambara 전통에서 말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 힘이라고 생각한다. 말은 창조의 도구다. 우주와 인간에 관한 그들의 창조신화에 따르면, 조물주가 모든 것의 근원인 태초의 알을 수태한 이후, 대화 상대자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 최초의 인간을 수태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약간의 신적 창조능력, 사유와 말이라는 선물을 유산으로 얻었다는 것이다.

대상을 지배하면서도 주체의 인격을 알려주는 준거가 된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말은 문자가 고착화시키는 한계를 벗어나 발화 주체의 살아있는 숨결과 실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만큼 주체를 섬세하게 표현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히 서아프리카 사회에서는 과거로부터 전수된 ‘조상들의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이 유사 이래 이어지는 여러 세대를 걸쳐 정신 영역과 실제 삶의 영역에서 축적되었던 것의 총화를 이룬다.”<sup>9)</sup>고 한다면, 것처럼 구술 사회가 터득한 지혜들의 총화라는 전통은 곧 ‘조상들의 말’을 나타낸다. 이점에서 “전통은 아프리카인에게 있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해주는 소통 수단”<sup>10)</sup>이 된다. 조상들의 세계와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를 이어주는 바로 이 거대한 소통망이야말로 기도, 신화, 봉헌, 희생, 제식, 또 심지어는 춤을 통해 이해되고 완성된다. 조상들의 의지와 교훈이 담긴 기호들을 일부러 해석할 필요는 없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암암리에 받아들여지는 일종의 일체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상들의 말이 이루는 전통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소통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 세네갈의 시인 비라고 디오프Birago Diop는 죽은 자들이 늘 현존함을 이렇게 읊고 있다.

더 자주 들어라  
존재들보다 사물들을.  
불의 목소리가 들린다,  
물의 목소리를 들어라,  
바람 속에서 들어라  
오열하는 덩불 소리들.  
조상들의 숨결,  
죽은 조상들의 숨결은,

9) Dominique Zahan, *Religion, spiritualité et pensées africaines*, Ed. Payot, Paris, 1970, p. 80.

10) D. Zahan, *ibid.*

떠나지 않았다,  
땅 밑에 있지 않다,  
죽지 않았다.<sup>11)</sup>

이처럼 조상의 존재가 살아있는 자에게 확인되는 것은 세월을 두고 전수되는 말에 의거해서다. 더 나아가 그러한 구술 전통은 궁극적으로 아프리카인의 문화적 정체성, 즉 아프리카적 특성 *africanité*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를 결집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며 구술전통이다. 말은 사회통합의 원동력이며, 사회 공동체는 말의 가치와 존중에 근거해서 형성된다. 문자의 사용이 발달하지 않았던 구술 사회에서 인간은 말로 하나가 되고, 또 말이 그 증거가 된다. 이렇듯 아프리카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말과 구술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아프리카 사회에서 말은 미학적이며 시학적 기능을 갖는다. 아프리카인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들의 말솜씨이다. 말을 유창하게 잘 한다. 다양한 기능을 갖는 구술 전통 전수 수단으로서의 말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그냥 발설되지 않는다. 최대한 예술적으로 상징과 은유를 통해 차원 높게 표현된다. 더욱이 그것이 구술 문학으로 확대되면 단순한 언술이 아니라 아름다운 운율과 반복적 리듬을 갖춘 미학적 형식과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학적 표현이 된다. 이점에서 삼바 디오프 Samba Diop는 L. 케스틀룻이 언급한 중요한 차이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

“연대기 작가의 목표는 오직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는 진실을 탐구한다. 그가 상상적인 이야기를 꾸며낸다면, 그것은 무의식적인 것이다. 반면 그리오는 이러한 역사적 소재에서

---

11) Birago Diop, «Souffles», (traduction) in *Anthologie de la nouvelle poésie nègre et malgache de langue française*, Léopold S. Senghor,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aris, 1948, p. 144.

시작해서 특히 능숙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의 목표는 미학이다. 그의 자질은 정확성도 엄밀함도 아니라 아름다운 언어이다.”<sup>12)</sup>

말은 신성한 표현매체이기에 진실만을 정확하게 말해야 하겠지만, 그 말을 표현하는 방식은 미학적이며 시학적이다. 아프리카 사회에서 시적 표현은 자연스럽고 흔한 일이다. 분명 질적인 차이와 층위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아프리카인은 말을 아름답게 사용하고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따라서 적합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잘 해내는 것은 사회적 출세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자(賢者)처럼 존경받고 말의 비밀을 잘 아는 화술에 능한 지도자와 그리오처럼 대부분의 흑아프리카인은 그들이 받은 교육과 자연적 성향,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구술 표현에 각별히 신경 쓰며 올바르게 아름답게 말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일상의 모임이나 축제 행사는 진정한 구술 경연의 장이 된다. 더 나아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어떤 민족이건 인간 활동은 시적으로, 즉 예술을 통해 그리고 예술을 위해 체험된다. 일상 활동이 아름다운 말을 통해 예술적으로 표현되며 또 아름다운 노래와 춤을 곁들여 종합 예술처럼 체험된다. 결국 아프리카 사회에서 말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학적이며 미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 5. 말의 소통의 규제

그런데 아프리카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는 말이 아주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작용한 만큼 여러 가지 제약 요소를 동반하게 마련이다. 장 드리브의 표현처럼 “모든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 구술 전통의 사회에

12) Sampa Diop, *Oralité africaine. Entre esthétique et poétique*, L'Harmattan, 2011, p. 22 재인용. L. Kesteloot et al., *Da Monzon de Ségou épopée bambara*. Tome 1, p. 17.

서 아무나 무엇이건 어떤 대화자에게나 말하지 않는다.”<sup>13)</sup> 말이 소통되려면, 어떤 주제로 누군가가 누군가 앞에서 발설하고 듣는 행위와 절차는 일정한 준칙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고 조용히 침묵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힘을 보유한 최고 권력자의 말은 아주 강력해서 그 힘을 다소 부드럽게 해주며 일반 서민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개자의 존재가 요구된다. 이를테면 진한 농담을 하더라도 대중과 그 대상이 화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체계화된 말의 규범이 존재한다. 폴레트 룰롱도코 Paulette Roulon-Doko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말의 소통은 문화에 따라 가변적인 일정한 규범들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sup>14)</sup> 특히 말은 그 말이 전달되는 사람들의 나이, 성, 사회적 신분을 고려해서 각 경우에 적합한 진술의 형식이나 발설자의 태도를 적절하게 취해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사용 규범이 필요한 것이다.

이점에서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유형에 따라 규범들이 상이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니제르 Niger의 투아레그족 Touareg 사회처럼 엄격하게 체계화된 계급 사회에서는 중간 매개자, 즉 메신저가 존재한다. 나이나 성, 사회적 위상 때문에 개인들 간의 직접적인 말의 교환은 관례적으로 금지되며 발설자의 말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중개자를 통해 대화자에게 전달된다. 특히 태생적 신분 사회인 사헬 Sahel 지역에서는 이러한 계급 사회의 엄격성을 보상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며 그리오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한다. 그들은 의사소통이 차단되거나 규범에 따라 금지될 위험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에게는 면제특권이 주어진 것처럼 대화자의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한테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는 협상가로서, 메신저로서 또는 사자(使者)로서, 온갖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또는 규범이 금지하는 파

13) Jean Derive, «Parole et pouvoir chez les Dioula de Kong», *Journal des Africanistes*, n°57, Fasc.1-2, 1987, p. 19.

14) Paulette Roulon-Doko, *op. cit.*, p. 7.

트너 간의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 반면 중앙아프리카의 그바야족Gbaya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거기서는 금기 시되거나 피해야 되는 절차나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거의 계층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서로 말을 주고받는 문화를, 그래서 가족 내부에서는 서로 존대를 하는 체계를 발전시켰다. 이는 세대 간의 차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존대를 통해 나이나 성, 사회적 위상의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결국 계층화된 사회에서는 사람의 권력에 따라 말에 힘이 실린다면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말의 힘이 발설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의 능력이나 말의 성격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 결국 말은 사회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규범 체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회에서 특히 허구적이거나 상상적인 구술 문학 장르들을 생산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원형 담론과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기존의 것과 다르게 만드는 새로운 창조 행위를 두려워하며 이를 극도로 조심한다. 왜냐하면 말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동일한 공동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일탈을 피하는 데 이상적인 것은 새롭게 창조하지 않고 동일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전통 자산에 대한 이러한 충실성의 요청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심지어 여기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가령 예전에 르완다Rwanda에서는 왕조의 역사를 전달하는 일을 맡고 있는 시인 역사가들이 암송 중에 몇 마디 말을 잘못했다고 해서 사형을 당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하라 이남 대부분의 아프리카 전통에서는 작품의 생산이나 소비에 있어서의 규제는 궁극적으로 잠재적 창조의 금지를 통해 나타난다.<sup>15)</sup>

15) 그런데 사실 아프리카 구술성에는 언어적 창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사실 대부분의 구술 문학 장르들은 가변적이다. 아무리 기존의 작품에 수정을 가하지 않고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동일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가변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령 동일자의 다양한 해석, 여러 해석자들의 다양한 해석, 풍습의 진화로 인해 세대를 거쳐 작품에 대한 해석이 진화된 경우, 내용이 바뀌는 경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작품들이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아무나 생산하거나 소비하지 못하며 아무데서나 어느 때나 마음대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허구적이거나 상징적인 작품들을 생산하는 행위는 일정한 시간(일몰 후)에, 일정한 장소에서(여성들은 집 안에서, 미혼의 젊은이들은 집 밖에서), 일정한 사람들(결혼적령기에 이른 여성의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는 금지함)과 함께만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러한 제한 규정을 위배하지 않을 때 사회성을 인정받고 교육을 잘 받은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끝으로 구술문학 전문가 크리스티안 세이두 Christiane Seydou의 구술문학에 관한 규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작품들의 구조적 특성보다는 대화적이며 구술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구술 문학 장르들을 ‘텍스트texte’라는 용어보다는 ‘담론discours’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면서, 마찬가지로 구술 문학 장르를 규정짓는 기준으로서 언술행위의 파트너들(생산자, 소비자, 대화자), 언술행위의 조건들(시간, 공간, 상황들), 그리고 언술행위의 양태들(말, 노래, 음악 반주 등)을 제시하며 일정한 규범이나 제약 조건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6)</sup>

---

세대를 거쳐 저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러한 가변성을 은폐시킨다. 하지만 실제로 구술 문학 장르의 목록이 해마다 풍부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적 창조에 의한 변화도 공동체의 목록에 들어가려면 많은 과정과 반항을 거쳐야 하며, 그렇게 되면 이미 창조의 기원을 잊고 전통이 필요로써 집단적 차원을 갖게 된다. 이러한 동일성의 유지 측면에서 또 다른 어려움은 어쩌면 문자 문화과는 달리 동일자의 준거가 되는 구체적인 원전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원전은 발화자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기에 다만 잠재적인 원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해 구술문학의 원전은 전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변적이고 모호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16) Christiane Seydou, « Genres littéraires de l'oralité : identification et classification », in U. Baumgardt et J. Derive (dir.), *Littératures orales africaines*, Paris, Karthala, 2008, pp. 123-173.

## 6. 말의 비유

아프리카의 창조신화들 중에서 가장 알려지고 보존이 잘 된 신화가 바로 도곤족의 우주생성 신화이다. 마르셀 그리올 Marcel Griaule과 그 후계자들, 특히 쥘스비에브 칼람 그리올의 연구를 통해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진 이 신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신화가 바로 말의 은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신화 이야기에 따르면, 세계는 (말의 원칙으로서의) 암마 Amma와 (대지와 동일시되는 본래의 태반을 나타내는) 세계의 알의 결합을 통해 창조되며, 거기서 남녀양성의 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는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부정 원칙으로서의 창백한 여우였으며, 다른 하나는 암마가 직조(織造)를 맡긴 긍정원칙으로서의 놈모 Nommo라는 신이었다. 세계의 수많은 신화들 속에서 우주를 직조의 양상으로 고찰하고 있듯이, 도곤족의 창조신화에서도 인간은 이렇게 놈모라는 신의 직조의 결과로 등장한다. 그의 몸은 베틀이며 그의 말은 전통 베틀에서 빠져나오는 길고 가는 천 띠와 동일시된다. 다시 말해 놈모는 입에서 면사들을 내뱉어서 그들을 두 갈래의 혀를 이용해서 직조한다. 그 혀는 말하는 동시에 치아 사이에서 북의 역할을 하며, 그의 말은 천에 고정되어 조상 비누 세루 Binu Serou에 의해 인간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그러한 전달은 그 말을 북 tambour에서 연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처럼 세계가 직조의 결과라는 생각, 다시 말해 인간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온갖 종류의 상징적인 실들을 씨줄과 날줄로 짜고 또 짜야 한다는 생각은 그들의 선사 시대 문명의 토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놈모가 직조와 더불어 말을 인간들에게 가르쳤다는 점이다. 인간들에게는 언어가 없었다. 그들은 단지 으르렁 대고 외침을 통해서만 서로의 의사를 교환하고 있었다. 놈모는 그들에게 직조와 동시에 말을 가르쳤다. 그는 면실을 내뱉어서 혀를 사용해 직조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말을 천 위에 고정시킨다. 도곤족의 근

본적인 활동으로서의 직조는 천을 만들기 위해 실들을 교차하는 것이지만 이는 또한 말을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베틀의 각 부분은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신체 기관에 해당한다. 도르래는 성대와 연결되며, 베틀은 입, 복은 혀, 빛은 치아와 연결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직조는 말의 은유로서 작용한다. ‘textum’(직물)이라는 용어는 말을 통해 형성되고 전수되는 구술 문학의 ‘텍스트’를 연상하지 않더라도, 말 자체가 질문과 대답으로 서로 얽히고 짜여 있음을 연상시킨다. 도곤족에게 있어서 말은 이렇게 직조와 연관되며 그 등가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민담, 수수께끼, 신화 이야기, 할레 노래 등 구술 문학은 직조되고 교차하고 다양한 변주로 나타나는 ‘텍스트’가 아니겠는가. 어쨌든 세계가 직조의 결과라는 점에서 말은 도곤족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교화된 세계 속에서, 말은 인간의 모든 활동의 총합을 보여준다. 말은 곡물과 곡식을 생산하는 농사이며, 말은 또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장간이다. 말은 생산물을 음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부엌이며, 말은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옷감이다. 또한 말은 파종에 쓰이는 씨앗이기도 하다. 말은 근원이 되기도 하고 사회관계를 확장한다. 말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노동의 도구다. 말은 삶을 영속시키는 양식이다.<sup>17)</sup>

이렇게 말은 인간의 온갖 활동과 연관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말은 인간의 모든 활동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역으로 인간의 온갖 활동은 말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가령 도곤족의 신화에서 직조공이 우주의 창조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처럼, 직조 자체는 하나의 말을 의미한다. 직조기의 가로대와 세로대를 북이 왕복하며 말이

17) Mario Corcuera Ibáñez, *Tradition et littérature orale en Afrique noire. Parole et réalité*, L'Harmattan, 2009, p. 60.

고정되고, 발에서 농부의 왕복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작은 조상의 말이 침투하게 한다. 또한 대장장이는 말을 만들어내고, 직조공은 말을 꾸미고, 신발 만드는 장인은 가죽에 무두질할 때 말을 다듬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직조를 포함해 인간의 모든 활동은 말의 은유로 확장된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말을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나 사물과 비유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그바야족에게 있어서 말은 야생 동물에 비유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단 발설된 말은 살아 움직인다. 그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율적인 삶을 갖는다. 그래서 그 흔적을 추격할 수 있는 야생 동물에 비유된다. 왜냐하면 구술 전통 문화에서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생각이나 감정 등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의 자율성 자체는 그만큼 말을 경계와 교육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자신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거의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중시하는 사회적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의 구사능력을 완벽한 단계로까지 끌어올리는 것, 그러기 위해 긴 호흡의 학습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반면 요루바족에게 있어서 말은 달걀에 비유된다. 일단 발설되면 고쳐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완전하고 충만한 형태로서의 달걀처럼 말은 완전해야 한다. 일단 깨지면 그 흔적을 지우기 힘든 것처럼 말은 아주 무겁고 깊은 자국을 남길 수 있다. 또한 깨지면 다시 모아 하나의 덩어리로 응집시킬 수 없는 달걀처럼 일단 밖으로 새어나가면 말 전체를 다시 한 데 모을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플라니족에게 말은 물과 같다. 일단 었지르면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찬가지로 말이 바람과 같다고도 한다. 그 근원이 마르지 않고 그 용기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바야족에게는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가 있다.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할머니의 냄비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 그것은 귀와 말이다.”<sup>18)</sup>

18) Yves Monio, «Le creuset de la parole», *Journal des Africanistes*, n°57, Fasc.1-2, 1987, p. 207.

## 7. 구술 문학의 구술성

사하라 이남 흑아프리카 사회에서 말은 문화적 토대를 이루며 아프리카인들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당연히 장기간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말을 익히고 실제로 말을 잘해야 하는 일상의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낱말들을 나열해서 이어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더욱이 학교에서 배운 언어 교육, 문법 교육, 랑그 차원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인들은 특히 발설자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청중의 감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면서도 직설적인 표현을 삼가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한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말, 즉 ‘단순한 말’과 ‘심오한 말’이 존재한다면, 특히 아프리카인들은 의미의 해독이 필요한 우회적이고 뜻이 숨겨진 후자의 말을 선호한다.<sup>19)</sup> 니제르의 투아레그족의 경우, 의미를 직접 알 수 없는 간접적인 담화가 일상적으로 추구되고 찬양을 받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말하는 기술, 즉 화술이 어쨌든 투아레그족의 전통에서는 각 개인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자질로 통한다. 속이 깊은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창조적인 지성으로 승양되며 그러한 말을 구사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높이 평가되는 능력으로 간주된다. 직접적인 말은 수치심이나 분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우회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모이고 짜이고 얽혀서 직조(tissage) 행위를 통해 천(textum)이 만들어지듯 텍스트(texte)를 구성하게 된다. 단순하거나 심오한 말들이 모여서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할 때 결국 구술 문학이 탄생한다. 그리고 이 구술 문학은 때론 시 형식을 빌기도 하고 때론 이야

19) 가령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며 농담하는 아이러니(ironie)가 그러한 완곡한 말에 해당한다.

기 형식을 빌기도 한다.<sup>20)</sup>

먼저 시 형식의 노래나 주문(呪文)들을 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들이 등장한다.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찬양을 주제로 하는 찬양시이다. 찬양의 대상은 사람, 동물, 나무 등 다양하며, 사람 중에는 족장, 전사, 주요 인물들, 왕이나 제국의 설립자, 위대한 사냥꾼, 또 최근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시인은 당연히 찬사를 늘어놓으려고 하는 반면에 약점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또 다른 주요 주제는 찬양과 인접해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이다. 파트너에 대한 감탄과 성적 욕망 또는 결혼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뿐 아니라 가족애도 다룬다. 모성애는 그중 아주 널리 퍼진 주제로서, 어머니의 애정과 보살핌이 찬양의 대상이 된다. 어머니 입장에서 보호 본능과 자긍심 그리고 희망을 표현하는 자장가들을 노래하기도 한다. 이상의 긍정적인 주제와는 달리 비판적인 주제도 존재한다. 폄박받고 불우한 사람들의 단순한 불만을 표현하거나 가능한 모든 결함과 악행을 강렬하게 비방하는 시로부터, 사회적이며 정치적 이슈를 다루며 현대 젊은이들의 타락상이나 기혼 여성의 방탕한 풍습을 고발하는 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정치적 시는 독립 이전에 식민주의자들의 교만함을 고발하는 데 바쳐지며, 마찬가지로 독립 이후에는 그 비판의 대상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능한 정부가 되기도 한다. 또한 종종 다루어지는 또 다른 주제는 아프리카인들의 정치적 상처가 드러나는 전쟁에 관한 주제이다. 이는 국경 분쟁이나 민족 간의 갈등,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독립 투쟁의 역사를 지닌 아프리카인들에게는 피

20) 아프리카 구술 문화의 장르들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이론가들마다 다르고 무수히 다양하지만 각 지역마다 그리고 종족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범아프리카나 다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이시도르 오크페후 Isidore Okpewho의 지적대로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시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야기 형식이다. 특히 흑인종이 단일화된 사하라 이남 서부 아프리카를 고찰하려면 이러한 접근은 불가피하다. 근본적인 주제 면에서 일관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할 수 없는 주제인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노래에는 비탄과 공포가 스며 있으며, 때론 적을 도발하거나 조롱하며 우유부단함을 고발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때론 수많은 아프리카 전통 시에서 철학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기도 한다. 하지만 아프리카 구술 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마도 죽음이라는 주제일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대주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나<sup>21)</sup> 인간의 과도한 욕망에 제동을 거는 궁극적인 힘으로서, 또 때로는 사망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서 묘사된다. 더러는 죽음과 맞서 싸우는 호전적인 모습도 보인다.

반면 이야기 형식으로는 세 가지 주요 범주를 들 수 있다. 먼저 광의에서의 전설 $\acute{e}$ gende이라는 범주이다. 뛰어난 인물의 공적이거나 수훈을 이야기하는 설화로써 역사 이야기에 가까운 역사적 전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신화적 전설이 있다. 전자는 최근 사건들을 다루며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이야기꾼은 예술가라기보다는 연대기 작가에 가깝다. 반면 후자에서는 화자가 예술가처럼 설화를 미화하기 위해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한다. 특히 먼 옛날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서사시적이고 영웅적인 전설 이야기는 아프리카 도처에서 발견된다. 말리 제국의 창시자인 순자타Soundjata의 서사시가 가장 유명하다. 두 번째 범주는 설명적 설화 $\acute{c}$ onte explicatif이다. 여기에는 민족학자들이 보통 ‘신화 $\acute{m}$ ythe’라고 명명한 것이 해당된다. 자연 우주의 기원이나 문화적 세계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설화들이다. ‘왜 태양은 낮에 나타나고 달은 밤에 나타나는가?’, ‘왜 여자들은 그들의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서는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되는가?’ 등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종교적 믿음의 기원이나 모종의 기술에 관한 역사를 설명해주는 설화들도 있다. 여기에는 우화도 포함되는데, 거기서는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결론을 맺지 않은 채 이야기를

21) 가나의 아칸족의 슬픔이 담긴 시를 보자. “어머니, 너무 오래 전부터 당신은 떠나셨습니다 / 당신이 남긴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Nketia, 1955)

끝내며 유희적 토론이 계속 이어지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범주로는 앞서 언급한 노래나 이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것이지만, 격언적 형태나 지능 놀이의 성격이 강한 것들, 즉 속담(proverbe), 수수께끼(énigme/devinette), 말맞히기 놀이(calembour), 발음 놀이(jeu de prononciation)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형태들은 상대적으로 짧고 앞선 것들보다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잘 다듬어지고 절도 있게 구성되어 있다. 그것들은 또한 구술 문학의 미학적 관심과 언어적 상상력을 입증하는 장르들이다. 아프리카 사회에서 속담은 노래나 서사시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된다. 아프리카 소설가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는 나이지리아 동남부의 이그보족의 경우 ‘속담들은 낱말들을 맛깔스럽게 해주는 종려유’와 같다고 말한다. 그것은 대화의 소금 역할을 한다. 그것은 자연과 문화를 관찰한 결과 얻게 되는 지혜의 보고이며 주변 자연과 인간의 사회 경험에서 나온 인생의 응축된 진실을 나타낸다. 아프리카 속담들은 그 표현 면에서 짧고 경제적이다. 말에 맛을 더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지혜를 응축하고 있는 은유를 사용한다. 반면 수수께끼는 속담처럼 짧긴 하지만, 더 한층 즐기는 데 목적이 있다. 보통 가족 간의 식사나 연회 자리에서 또는 이어지는 휴식 시간에 노래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그것들에 대한 전주곡처럼 수수께끼를 교환한다. 대부분은 낱말이나 낱말의 소리에서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단순한 형태이다. 대답도 역시 질문의 내용이나 형식에 관한 것이다.<sup>22)</sup> 속담들처럼 수수께끼도 자연과 인간 사회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서 얻은 은유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것은 속 깊은 지혜를 드러낸다. 끝으로 짧은 형태의 또 다른 구술 문학 장르로는 낱말(또는 언어) 놀이가 있다. 특히 말 맞히기 놀이는 아프리카 언어에 고유한 자질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동일 낱말이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자질을 말한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아프리카 구술 문학에서 우리가 특히 공통적

22) 가령 질문-대답 형식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새들이 앉은 나무는 무엇일까? 우두머리.”

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문학 장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방식이다. 이점에서 앨버트 로드 Albert Lord의 유명한 문장을 떠올려보자. “한 편의 구술 시는 암송을 ‘위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암송 ‘도중에’ 구성된다.”<sup>23)</sup> 구술 문학은 실제로 실현되기 전에 완성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는 과정 자체에서 한 편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청중의 개입이나 청중과의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공연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전통적인 서술 행위는 노래, 춤, 연극 놀이와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술 문학에서는 언술 외에 초언어적인 매개변수들이 발설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주변 상황, 제스처, 화법, 그리고 특히 리듬 효과를 내는 장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구술성의 시학을 이루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층위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술성의 시학의 주된 양상은 이렇다. 그것은 언술을 통해 갖게 되는 기의signifié(시니피에)보다는 언술행위의 양태들(누가 말하고, 어떤 어조로, 어떤 악기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떤 문맥에서)을 통해 문화적으로 더 많이 의미한다.”<sup>24)</sup>

엄밀하게 말해서 아프리카 구술 문학 장르들은 언술의 유형과 언술행위의 유형들에 의해 이중으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언술의 기의만으로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술행위 상황에 따른 여러 요소들에 의해 작품의 의미가 다층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작품이 각 해석자나 예술가에 따라, 작품을 듣는 관객의 반응과 개입 여부에 따라, 그리고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공연에 동원되는 악기와 노래 가락이나 리듬에 따라, 다층적으로 작품의 구성

23) Isidore Okpewho, *Littérature orale en Afrique*, Mentha, 1992, p. 14 재인용.

24) Jean Derive, *op. cit.*, p. 86.

과 의미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 8.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아프리카, 특히 서아프리카에서 말은 문화적 토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며 수행적 가치를 지니며,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에서부터 신성한 표현매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소통은 엄격하게 규제되며,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표현으로 비유된다. 또한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구술 문학을 통해 미학적으로 그리고 시학적으로 잘 짜인 말은 그 본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아프리카 문화의 토대를 이루는 ‘말’이 만들어낸 구술 전통은 아프리카 현대 문학 속에서도 전통의 복원과 전복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삼바 디오프는 이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아프리카의 작가들이 스스로 부여하는 목표는 새로운 미학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말하건대, 이러한 새로운 미학은 (...) 구술성의 미학이라는 샘에서 길어온 것이다.”<sup>25)</sup> 수많은 아프리카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세계에서 때로는 작품의 주제 속에 말의 위상을 설정하기도 하고,<sup>26)</sup> 때로는 소설의 형식이나 문체 속에 구술 문학의 구술성의

25) Samba Diop, *op. cit.*, p. 19.

26) 가령 최초의 플라니족 소설로 간주되는 예로 도로 디알로 Yero Dooro Diallo의 『기타리스트 은디키리 *Ndikkiri le guitariste*』라는 소설은 플라니족 아마디 Hammadi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로서, ‘말의 위력’을 통해 주인공의 우월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내용을 갖고 있다. 아마디는 서사시 주인공과는 달리 무기를 싫어하며 심지어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한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가공할 말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말’이다. 그는 말을 경쾌하고 교묘하게 다룬다. 왜냐하면 말은 하나의 재능일 뿐만 아니라 소명이며 개인적 실현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는 노래와 음악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위반하기도

시학적 형태들을 차용해서 구성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후자의 형식적인 면이 현대 아프리카 문학에서 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아마두 쿠루마는 프랑스어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그 안에 아프리카인의 영혼을, 그들의 정체성을 담으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특히 구술성의 표현들(속담 등)이나 전통 그리오에게서 차용한 서술 방식들을 통해 나타난다. 가령 전통적으로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친교적인 소통 방식이나<sup>27)</sup>, 단어들이나 문장의 통사적 어법이 사용되기도 한다.<sup>28)</sup> 물론 이러한 쿠루마의 경우가 유일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문화의 구술성이 현대 아프리카 문학에 투영되는 다양한 양상을 살피는 것은 후속 작업에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아프리카 문화의 구술성은 현대 문학이나 전반적인 아프리카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에 대한 연구는 아프리카의 구술 전통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일조하고 있다. 오크페후가 지적한 대로,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유럽 연구가들은 조금씩 아프리카인들의 구술 텍스트에서 문체적이고 미학적 창조의 높은 수준뿐만 아니라 철학적 사유의 풍요로움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문화 전통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아프리카인들의 정체성 주장에 대해 공감을 하게 되었다.”<sup>29)</sup> 따라서 궁극적으로 앙드레 르루아 구랑André

---

하는데, 이는 말 자체가 강력해서 사회 질서를 전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소설 전체 줄거리는 주인공의 엉뚱한 행동에 그의 말의 위력이 덧붙여지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La littérature africaine et oralité*, sous la direction de Ursula Baumgardt et Jean Derive, Karthala, 2013, pp. 98-103 참조).

27) 이는 청중과의 연설행위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가 청중에게 말을 거는 경우이다. 가령 ‘당신들은 회의적으로 보이군요. 그럼 나는 단언하건대 이렇게 덧붙이겠습니다.’하고 말하는 화자의 선언적 문구가 그에 해당한다. 여기서 우리는 화자와 대화자 간의 관계가 보장되고 유지되는 전통적인 구술 문학의 구술성을 발견할 수 있다.

28) 가령 “Ibrahima a fini”라는 문장에서 ‘끝났다’하는 표현은 프랑스어로 옮기면 ‘il est mort’, 즉 ‘그는 죽었다’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완곡어법을 통해 전통적인 문장의 어법을 구사함으로써 아마두 쿠루마는 자국민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Leroi Gourhan이 말했듯이, “문자 없는 문명은 ‘미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념은 이미 시대에 크게 뒤진 것임”<sup>30)</sup>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29) Isidore Okpewho, *op. cit.*, p. 11.

30) André Leroi Gourhan, *Las raíces del mundo*, Ed. J Granicav S.A., Barcelone, 1984, p. 35. Mario Corcuera Ibáñez, *Tradition et littérature orale en Afrique noire. Parole et réalité*, L'Harmattan, 2009, p. 17 재인용.

## ■ 참고문헌

- Agblemagnon, F. N., *Sociologie des sociétés orales d'Afrique noire*, Paris-La Haye, Mouton, 1969.
- Baumgardt, U. et Derive, J. (dir.), *Littératures orales africaines*, Paris, Karthala, 2008.
- Calame-Griaule, Geneviève, *Contes dogon du Mali*, Paris, Karthala, 2006.
- \_\_\_\_\_, *Ethnologie et langage : la parole chez les Dogon*, Gallimard, Paris, 1965.
- Casajus, Dominique, «Parole retenue et parole dangereuse chez les Touaregs Kel Ferwan», *Journal des Africanistes*, n°57, Fasc.1-2, pp. 97-107.
- Derive, Jean., *L'art du verbe dans l'oralité africaine*, L'Harmattan, 2012.
- \_\_\_\_\_, «Parole et pouvoir chez les Dioula de Kong», *Journal des Africanistes*, n°57, Fasc.1-2, 1987, pp. 18-30.
- Diop, Birago, «Souffles», (traduction) in *Anthologie de la nouvelle poésie nègre et malgache de langue française*, Léopold S. Senghor,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aris, 1948, p. 144.
- Diop, Sampa, *Oralité africaine. Entre esthétique et poétique*, L'Harmattan, 2011.
- Drouin, Jeannine., «De quelques conceptions esthétiques d la parole dans la société touarègue», *Journal des Africanistes*, n°57, Fasc.1-2, 1987, pp. 77-96.
- Gourhan, André Leroi, *Las raíces del mundo*, Ed. J Granicav S.A., Barcelone, 1984.
- Ibáñez, Mario Corcuera, *Tradition et littérature orale en Afrique noire. Parole et réalité*, L'Harmattan, 2009.
- Kane, Mohamadou, «Les paradoxes du roman africain», *Présence Africaine*,

n°139, 1986.

\_\_\_\_\_, *Essai sur les contes d'Amadou Coumba*, Les Nouvelles Editions Africaines, 1981.

Labatut, Roger, «La parole à travers quelques proverbes peuls du Fouladou (Sénégal)», *Journal des Africanistes*, n°57, Fasc.1-2, 1987, pp. 67-75.

*La littérature africaine et oralité*, sous la direction de Ursula Baumgardt et Jean Derive, Karthala, 2013.

Leguy, C., *Le Proverbe chez les Bwa du Mali. Parole africaine en situation d'énonciation*. Paris, Karthala, 2001.

*Littérature orale africaine. Décryptage, reconstruction, canonisation*, sous la direction de Clément Dili Palaï et Alain Cyr Pangop Kameni, L'Harmattan, 2013.

Mermoud, M., *La Parole magique. Étude sur la performativité*, Lausanne, Archipel/Publications universitaires romandes, 2003.

Monino, Yves, «Le creuset de la parole. Gbaya 'bodoë, République centrafricaine», *Journal des africanistes*, n° 57, 1987, pp. 207-224.

Ndiaye, Christiane, *Danses de la parole. Etudes sur les littératures africaines et antillaises*, Editions Nouvelles du Sud, 1996.

Okpewho, Isidore, *Littérature orale en Afrique*, Mentha, 1992.

Penel, Jean-Dominique, «Quelques aspects du langage indirect chez les Zandé du Haut-Mbomou», *Cours de littérature orale centrafricaine*, Bangui, 1985.

Ricard, A., *Littératures d'Afrique noire : des langues au livre*, Paris, Karthala, 1995.

Roulon, Paulette et Doko, Raymond, «La parole pilée : accès au symbolisme chez les Gbaya 'bodoë de Centrafrique», *Cahiers de littérature orale*, n° 13, 1983, pp. 33-50.

- \_\_\_\_\_, «Le statut de la parole», in Baumgardt, U. et Derive, J. (dir.), *Littératures orales africaines*, Paris, Karthala, 2008, pp. 34-47.
- \_\_\_\_\_, «Les personnels et les modalités de vouvoiement en gbaya 'bodoë (Centrafrique)», *Linguistique Africaine*, 11, Paris, 1993, pp. 67-81.
- Ruelland, Suzanne, «Des chants pour les dieux : analyse d'un vocabulaire codé», *Journal des Africanistes*, n°57, Fasc.1-2, 1987, pp. 225-239.
- Sachnine, Michka, «Ifa sait la parole, l'histoire, les proverbes», *Journal des africanistes*, n° 57, 1987, pp. 161-173.
- Seydou, Christiane, «Genres littéraires de l'oralité : identification et classification», in Baumgardt, U. et Derive, J. (dir.), *Littératures orales africaines*, Paris, Karthala, 2008, pp. 123-173.
- \_\_\_\_\_, «La notion de parole dans le dialecte peu du Mâssina (Mali)», *Journal des Africanistes*, n°57, Fasc.1-2, 1987, pp. 45-66.
- Zahan, Dominique, *Religion, spiritualité et pensées africaines*, Ed. Payot, Paris, 1970.

❖ ABSTRACT

## The Orality of West-African Culture

Lee, Kyung Lae  
Kyung Hee University

A true understanding of African modern culture necessitates awareness of the lore of African oral tradition, and this essay illuminates various aspects of orality in West Africa. Oral utterance is a social attribute inherent in human beings, and the oral tradition is the essence of African civilization. Africans believe in the representational power of oral language in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value its infinite ability to cause action. This essay explores the functions of African oral languages as means of communication, holy expression, materializing authority, governing and ruling, connecting ancestors and descendants, aesthetically and poetically conveying human experiences, and narrating creation myths. Despite its many functions, the use of oral language is rigorously controlled by usage rules. The orality in West African culture has influenced African literature to this day. This essay reveals how orality in African culture has been restored or subverted.

Key Words : West African culture, orality, oral language, oral literature

■ 논문접수일 : 2020. 11. 10

■ 심사완료일 : 2020. 12. 13

■ 게재확정일 : 2020. 12. 14

